

## 도착언어 독자 지식을 고려한 뉴스번역 전략: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이 미 경  
(경희대학교)

**Lee, Migyong. 2011. Translation Strategy of News Texts Based on Shared Knowledge of Target Language Reader. *Linguistic Research* 28(2), 385-404.** Aided by the advancement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many news texts are translated and reported internationally to interested readers around the globe. The difficulties in translating the news stem from the lack of sociocultural background and subject knowledge on the part of the Target Text (TT) readers, which may result in misunderstanding or even distortion of meaning unless the translator intervenes. In addition, news text is often limited in the amount of print space as well as the information contents that can be included, restricting the translator's room for interven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xamples of English into Korean and Korean into English news translations printed by two major daily newspapers in Korea to investigate the translation strategies utilized by these two publishers to bridge the knowledge gap between Source Text (ST) and TT readers. Some of the strategies by the translators to adjust the informativity gap include addition of information, deletion of information, parenthesis, and localization of information. Investigation of translations of 50 news texts showed that relevance theory provides an important framework for translators when they intervene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target readers. (Kyung Hee University)

**Key Words** news translation, relevance theory, shared knowledge, informativity

### 1.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세계의 국가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그리고 긴밀하게 지구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기여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세계 각국 뉴스의 보급이라고 하겠다. 지난 몇 년간만 보더라도 국내 뉴스를 영역해서 제공하는 일간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외로부

---

\*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본고의 모든 오류는 저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터의 뉴스도 국내 관심 있는 독자가 증가하면서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의 전달을 위한 뉴스 번역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텍스트의 한 종류로서 뉴스는 번역사가 원천 텍스트의 구문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최소로 개입을 하여 번역해야 하는 텍스트로 설명하고 있다(Reiss, 2000). Reiss(2000: 18-20)에 따르면 뉴스는 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특징적인 표현, 용어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sup>1</sup> 무엇(what)이 어떻게(how) 이루어졌나 등의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러한 표현적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번역을 할 때 원천 텍스트(Source Text, ST)에서 나타나는 뉴스텍스트의 특성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뉴스를 번역할 때 충실성의 우선순위는 바로 원천 텍스트의 정보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전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ST에서나 TT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역의 과정에서 번역사의 역할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ST 저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다른 언어, 다른 사회문화권의 도착언어(Target Language, TL) 독자에게 뉴스가 읽히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이해의 과정을 보면 독자는 텍스트의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대입하여 그 의미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읽은 내용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관련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정보는 더 큰 의미로 남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문제는 ST 저자가 독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지식과 실제 TT 독자가 공유하는 지식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주제에 대한 지식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 뿐 아니라 SL와 TL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결국 뉴스번역의 과정에서도 번역사는 공유지식의 차이를 채워주기 위한 교량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Nida & Taber(1969)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사소통의 중개자인 번역사는 독자의 수용능력(channel capacity)을 고려하여 의미를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유지식 차이로 인한 정보성의 문제에 직면한 번역가가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설명을 추가하여 ST 저자와 TT 독자의 공유지식 차이를 좁혀주는 것이다. 이때 목표는 독자들이 되도록 쉽게 문맥을 이해하고 ST 독자들이 느낀 것과 같은 친근함과 언어적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번역사는 문맥에

<sup>1</sup> Reiss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specialized technical terms and expressions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예로서 뉴스텍스트에서는 “informed sources report that...”, 비즈니스 문서에서는 “with reference to your letter of ...” 등을 예로 들었다 (p.19-20)

적절하면서도 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관련된 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번역사에게 관련성 이론은 저자와 TT 독자가 전제하는 공유지식의 간극을 줄이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번역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인 출발언어(Source Language, SL) 독자와 도착언어 독자 간의 공유지식의 차이로 인해 발행하는 문제를 주목하여 의사소통의 중개자로서 번역사가 어떻게 개입하여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실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 번역 사례를 분석하여 언론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알아보고 이를 뉴스 번역의 한 방법으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의 번역에 있어서 관련성이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 뉴스의 영문번역과 영문 뉴스의 한글번역의 번역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목적은 뉴스 번역 분야에서 관련성 이론의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번역 유형 보다 어느 정도의 범위가 수용되는지를 비교해보고 미래의 뉴스 번역은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이게 번역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다른 번역 유형과 비교해 뉴스의 두드러진 특성을 관련성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뉴스 텍스트의 번역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관련성 이론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또 이 이론을 통하여 실제 번역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뉴스 번역과 관련성 이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4장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로서 번역사가 어떻게 의미 전달의 과정에 개입하였는지 알아보고 이를 언어방향에 따라 분류했다. 번역방법의 분류를 통해 관련성 이론에 입각하여 뉴스 텍스트 번역시 정보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뉴스 번역의 특성 및 어려움

1)

ST: 북한 대표단은 지난해 침몰한 천안함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다며 강력

하게 부인하면서 회담장을 떠났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TT: The team left the meeting room vehemently denying involvement in last year's sinking of the South Korean corvette, the Cheonan, the official added.

2)

ST: 그 소식통은 “우리측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북한이 요구했던 한반도 군사긴장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TT: “We offered that Cheonan and Yeonpyoeng Island be discussed first, and then military tensions on the peninsula, which North Korea had requested,” the source said.

(Korea JoongAng Daily)

위의 1)과 2)의 번역을 보면 동일하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TT번역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번역의 과정에서 전제하는 TT독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유지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의 경우는 TT의 독자가 천안함 침몰에 대해 사전 지식이 많지 않다는 가정 하, 천안함이 남한의 소형 고속함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반면 2)의 번역에서는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라는 표현만으로도 TT독자가 무슨 일이 있었고 현재까지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잘 알고 있다고 간주하고 번역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문제”를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라고 간단하게 표현했다.

만약 위의 문장에서 각 텍스트의 TT 독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텍스트의 내용이 독자에게 관련성이 없는 정보로 받아들여졌다면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번역에서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과정을 보면 화자와 청자는 공유하는 상호 인지 환경을 토대로 추론을 하는데 화자는 청자의 인지 능력과 문맥적 근원을 정하여 의사소통 방식에 반영한다고 Sperber & Wilson(1986: 15-16)에서 설명하고 있다. 의사소통의 목적은 발화 속의 어떤 정보에 대해 화자와 청자 상호간에 명확히 추론하는 것인데, 청자는 필요한 정보를 추론하기 위하여 화자가 맥락에 관련성 요소를 부여했음을 전제로 자신의 관점에서 관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맥락을 찾아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번역이 이루어지는 이 문화 간 의사소통의 상황에서는 ST의 저자가 TT의 독자와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다르다. 이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

해서 TT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관련성 요소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를 저자와 독자 간 정보성이 차이라고 한다. 정보성이란 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새롭거나 낯선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이 개념은 내용과 관련하여 쓰이지만 한 언어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언어사용형태에도 적용된다 (Beaugrande 1981: 139.)

Neubert & Shreve(1992: 52)는 ‘공유지식’이란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통의 경험 체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하는 것으로 공유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공통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점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번역사의 임무는 TT독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수준을 파악한 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국내 일간신문에서 보도 되는 뉴스 중 일부는 선별되어 영어로 번역되고 영문판으로 발행되고 있다. 예로 중앙일보의 뉴스와 사설 등 일부 기사를 Korea JoongAng Daily에서 동일 기사의 영역본으로 읽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CNN의 뉴스 중 일부는 한글로 번역되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다. 각 신문사에서는 매일 매일 보도되는 수 많은 기사 중 어느 뉴스를 선택하여 번역할 것인지를 선별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번역을 위한 텍스트로 선택이 되었다는 점 만으로도 이들 뉴스는 TT독자에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에서의 뉴스가 국내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지가 TT독자와의 관련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 외에도 뉴스의 가치를 그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적합성 또는 필요성 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다. 국내 뉴스의 경우 해외거주 교포 및 한국거주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인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이 외에도 수익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이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충분히 흥미유발을 할 수 있는 정보인지도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뉴스텍스트 번역의 어려움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TT 독자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ST와 TT사이 존재하는 정보성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서 비롯된다. 뉴스번역에서도 다른 종류의 텍스트 번역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T와 TT간 등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House(1981: 125)에서는 등가를 이루는 번역이란 TT텍스트가 그 문화에서 ST의 지위를 즐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ST가 ST 언어권 독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같은 영향을 TT가 TT 언어권 독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SL 독자와 TL 독자 간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이러한 등가를 달성하는 번역을 하기란 쉽지 않으면 번역사는 두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적 차이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번역사는 TT 독자가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ST의 의도된 바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번역사는 관련성 원리를 근거로 적합하게 번역하기 위하여 각 경우에 필요한 다양한 번역전략을 택하여 번역에 임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번역 상 ST와 TT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TT 독자들의 사회문화적 배경 차이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SL의 독특한 문화적 유산과 관련된 표현을 그와 같거나 관련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TT 독자들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번역상 불일치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일치는 오역이나 실수가 아니라 두 언어 사회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필수불가결한 변화로 간주하여야 한다.

## 2.2 관련성 이론

의사소통의 참여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언어 그 자체와 관련된 ‘언어 내적인’ 부분이라든가, 문화를 비롯한 그 밖의 다양한 ‘언어 외적인’ 부분이 있으며 논의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의사소통의 참여자간에 공유된 정보가 필요하다. 말하는 이가 주제와 관련하여 가정하고 있는 정보를 듣는 이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말하는 이가 의도하는 새로운 정보의 전달과 이에 대한 듣는 이의 정보 획득은 주제를 둘러싼 정보가 대화 참여자간에 상호 공유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나 정보처리의 과정에서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사회, 문화, 역사, 정치적 배경을 공유하는 대화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은 의도적인 예외 상황을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언어가 다르고 사회, 문화, 역사 등의 배경이 다른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에게는 문제가 다르다. 정보의 공유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원천 문화의 텍스트를 목표 문화의 텍스트로 번역하는 일은 바로 언어와 기타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른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을 서로 연계시켜 주는 일이다. 따라서 번역자가 원문에 “충실”하다는 미명아래 어떠한 개입이나 중재 없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여 독자로 하여금 ST에 접하도록 한다면, TT문화권의 독자와 원저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ST에 내포되어 있는 언

어내적이고 외적인 지시와 함축의 내용을 TT에 그대로 보존하려 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암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번역사가 의사소통의 과정을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TT의 독자들이 해당 정보처리에 소요해야 하는 비용과 그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인지적 이득의 관계를 고려하고 그에 대한 최적의 효율성에 대해 따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저자와 독자가 어떻게 의사소통에 전제된 가정들을 전달하고 그러한 가정들을 유추하는지 밝히는 문제로 관련성의 이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관련성 이론에 따르면 정보처리에 소요되는 ‘노력’이 적게 요구될수록 그에 따른 보상인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가 커져 발화는 듣는 이 또는 독자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는 일은 듣는 이 또는 독자가 지니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의 적절한 상호 작용을 통해 신속한 정보 처리와 용이한 신정보의 획득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때 관련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새로운 정보라는 가치는 상실하게 된다. 이미 기존에 구축된 경험과 지식에 의해 해당 정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 새로운 느낌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원저자와 최종의 독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위해 원천 텍스트에 내포된 암시적이고 함축된 정보 뿐 아니라 전제된 정보에 대해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중재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잘못된 가정을 세워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는 청자와 화자의 마음을 반영한다. 관련성이론은 정보처리 노력과 그에 따른 이득이란 틀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관점에서 번역의 등가(equivalence)를 논하려는 시도이다.

### 2.3 관련성 이론: 정보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

번역본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Baker(1993)는 번역의 보편성이라 하였으며, 이 보편성은 원천 텍스트보다 번역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상의 특성이라고 하였다. 번역에 있어서의 보편적 특성 중 명시화, 단순화, 규범화가 있다. 첫째, 번역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명시화는 원천 텍스트에 함축되어 있던 정보를 목표 언어로 전환하여 표현할 때 이해하기 쉽게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Toury(1995)는 명시성과 가독성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시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lum-Kulka(1986)의 명시화 가설(explicitation hypothesis)에서는 원문이 번역가에 의해 실행되는 번역과정에서 번역문에서 어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언어표현을 첨가하는 경향이 있어 번역문은 원문보다 더 길어지게 된다. 또한 Klaudy & Karoly(2003)에 의하면, 명시화는 원문에서 일반적 의미가 번역문에서 더 특정한 의미로 대체되었을 때 나타난다고 관찰하고 있다.

둘째, 명시화와 상반되는 번역 특성으로서 ST에서 TT보다 문장의 길이와 문장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을 단순화라 한다. 번역본에서 단순화는 어휘적, 통사적, 문체적 형태가 있는데 Blum-Kulka는 어휘적 단순화를 ‘더 적은 단어들로 만들어지는 경우나 혹은 과정이라고 하였다. 어휘적 단순화는 주로 TL에서 등가의 하위어가 없을 때 상위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SL와 TL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로 바꾸어 쓰기를 할 때 나타난다.

셋째, 규범화는 번역물이 TL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는 경향을 말한다. Vanderauwera(1985)에 의하면 규범화는 목표언어의 독자들에게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텍스트의 형식을 따르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주로 구두점, 어휘선택, 문체, 문장구조, 텍스트 구성과 관련한 전환을 실증적 예로 들었다. 번역가들은 무의식적으로 번역물의 텍스트와 사회적 상황에 부합하여 TL의 전형적인 형식을 선택한다. 따라서 Pym(1996)에 의하면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들은 세계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더 국제적인 형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번역에서의 등가란 원문이 원문의 독자에게 갖는 관련성과 번역문이 번역문의 독자들에게 갖는 관련성이 등가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번역은 관련성의 등가를 추구 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Nida & Taber(1969)는 새로운 번역의 기준으로 동등 효과(equivalent effect)를 제안해서 번역학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원래 번역이란 원문의 형태가 아니라 메시지 또는 의미를 재표현하는 것이며 번역은 일치가 아니라 등가를 찾는 작업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등가는 원문과 번역문의 수용자가 각각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두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얼마나 동등한가를 기준으로 한다. 즉, 번역문은 원문이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결과와 동등한 영향과 결과를 번역문의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성 이론에서는 이 등가라는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수용자 즉 독자에게 요구되는 정보처리에 있어서의 노력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번역교육에 적용한다면 향후 의사소통의 중개자로서 번역사의 역할에 대해 좀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또 번역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관련성 이론은 번역 방법론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다.

### 3. 연구 방법과 절차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보도된 뉴스의 한글과 영문 번역본 그리고 해외에서 보도된 뉴스와 한글번역본을 분석하여 이들 뉴스텍스트에서 ST와 TT 독자 사이의 정보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번역사가 어떻게 개입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텍스트는 국내 대표적인 영문일간지로 Korea JoongAng Daily와 Korea Herald 그리고 조선일보 등 3곳 신문에서 발행된 뉴스번역 사례와 다국적 뉴스 보도 전문 매체인 CNN의 인터넷 뉴스이다. 이들 신문은 한글본과 영문본이 매일 함께 발행되거나 기사를 번역하여 익일 영문판 일간신문이 발행된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텍스트는 구체적으로 한영번역은 중앙일보와 Korea JoongAng Daily에 실린 기사 20개와 CNN뉴스 영한번역 기사 30개, Korea Herald 한영기사 5개 그리고 조선일보 한영번역 5개이다. 텍스트를 번역한 번역사는 전문번역사들로 각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 소속 번역사이다.

총 60개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첫째, 번역의 과정에서 번역사의 개입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보의 변화로는 TT 독자에 적합하도록 정보를 추가하거나 생략하고 또는 대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둘째, ST에서 TT로 전환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이는 한영번역과 영한번역이라는 방향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번역의 방향에 따라 번역사가 개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호하거나 더 높은 빈도로 취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영, 영한 번역에서 나타난 개입방식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뉴스 번역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한영, 영한 번역 뉴스기사 총 60개이다. 공정성을 기하고 임의적인 선택이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2011년 2월 1일부터 3월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선정한 언론 매체에서 번역해서 발행한 뉴스를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분석은 먼저 ST와 TT를 비교하면서 정보의 차이가 발생한 곳을 찾는 작업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 작업으로 정보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방법에 따라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분류한 번역과정에서의 개입방법이 언어의 방향성이나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 특정 방식을 선호하거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번역 방법의 분석과 분류는 전문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두 명의 번역사가 각각 분석한 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합의했다.

#### 4. 분석

Nida & Taber(1969: 164)에서는 수용능력(channel capacity)에 대해서 말하면서 ST독자들에 비해 TT의 독자들은 저자와의 소통의 통로가 좁기 때문에 번역사가 텍스트를 적절히 수정 보완해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ST 독자들처럼 원활하게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번역사들은 주어진 정보를 유지하면서 거기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낯선 정보를 삭제, 축소하거나 상위어 표현으로 번역하거나 목표 언어 독자들에게 친근한 정보로 대체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Kirk 2001: 125-126). 문맥이 TT독자들에게 지나치게 낯설거나 어려워 정보처리에 드는 노력에 비해 얻게 되는 효과가 적은 경우, 혹은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할 정도로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정보를 삭제하거나 축소하게 되고 특정 내용이 독자들의 문맥 이해에 필요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넣어 준다.

본 연구에서는 한-영 뉴스 텍스트 60개를 분석하여 이들 텍스트에서 나타난 번역사가 TT 독자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번역과정에서 개입함으로 변화가 발생한 부분을 분석했다. ST와 TT간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총 99회 있었다. 한영번역에서는 51회 영한번역에서는 48회 발생했고 분석결과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4.1 TT에서 정보를 추가 ( $A \rightarrow A'+a$ )

ST: The next Winter Olympic in Russia will feature six new events, meaning that more women will be able to compete in 2014.

TT: 러시아 소치에서 2014년 열리는 동계 올림픽에서 6개 종목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로써 여성 선수들이 더 많은 종목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ST의 러시아에서 개최될 차기 동계올림픽이라는 정보가 러시아 소치라는 지명이 포함되어서 더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현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올림픽에 대해 언급할 때 국가명이 아니라 개최 도시명을 붙여서 부르는 TT의 관행을 적용해서 번역에서 표현한 것으로 더 적절하다. TT 독자가 충분히 궁금해 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서 정보처리에 필요한 노력을 줄여 줌으로 관련성을 높인 경우이다.

ST: Several of the children will be buried Friday at locations and time still

to be determined, Agentia Brasil reported.

TT: 현지 언론인 아젠시아 브라질은 일부 희생된 학생들의 장례식이 8일 있을 예정이며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ST에서는 Agentia Brasil이라고 표현했으나 이에 대해 TT 독자들이 배경지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지 언론’ 아젠시아 브라질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지식의 제공은 TT 독자의 공유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을 채워 준 경우이다.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추가될 경우 중복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등 미국이나 가까운 우방국가의 언론사 명칭만 추가정보 없이 명시되었으나 이제는 신화통신(중국), 아타르타스(러시아), 알자지라(중동) 등의 언론사 명칭도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친숙한 이름이라 추가적인 정보 제공 없이 그대로 번역한다.

ST: With a short video on BarackObama.com, the sitt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launched his bid for re-election.

TT: 미 현직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 버락오바마닷컴(BarackObama.com)에 올린 짧은 동영상을 통해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물론 이제는 .com이라는 확장자가 붙은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웹사이트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TT에서 자신의 홈페이지라는 설명을 추가하여 이 뉴스를 읽는 사람들 중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또한 웹사이트를 방문할 만큼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해 괄호 내에 홈페이지 주소를 적었다. 이는 TT독자를 상당히 배려한 번역이다.

ST: 제주도에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는 것에 대비해 3시간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TT: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nowing that Jeju Island would be first to be hit with radiation, has been conduction screenings of the air every three hours.

위의 예를 보면 ST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는 것에 대비해라고 표현했는

데 TT에서는 이를 *would be first to be hit*라고 표현했다. 즉, 처음으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곳이 제주도라는 의미가 추가됐다. ST의 독자는 일본으로부터 방사능 물질이 유입된다면 지리적인 위치 상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가장 가깝고 남쪽인 제주도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에서 촉각을 세우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반면, TT독자는 한반도와 일본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ST 독자만큼 모르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번역의 과정에서 *first to be hit*라는 정보를 추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4.2 ST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교체 (A → B)

ST: Sgt. Marcio Alexandre Alves, 38, and a colleague raced to the Minicipal School Tasso da Silveira in Realengo ....

TT: 무장경찰인 르시오 알렉사드레 알베스(38)이 동료와 함께 레알렙고에 있는 레소 다 실베이라 초등학교에서 ...

Sergent라는 직급을 하사, 경사로 번역하기보다는 문맥에서 TT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 무장경찰로 교체하여 완전히 새로운 표현으로 번역했다. 이 문맥에서는 경찰의 지위보다는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총격범에 대처할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정보가 더 중요하고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었다.

ST: Many oil futures settled up \$1.47, or 1.4% to \$110.32 a barrel.

TT: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 5월 인도분 석유 텍사스산 원유(WTI)가격이 전 날보다 1.47달러(1.4%) 오른 배럴당 110.32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원유선물(oil futures)이라는 정보를 새로운 정보인 ‘5월 인도분 석유 텍사스산 원유’로 교체해서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거래되는 선물거래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선물시장이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적절하고 신뢰가 가는 정보이다. 저자는 이 기사에서 ST의 독자는 이미 원유 선물로 미국 뉴욕에서 거래되는 것이라는 언급만으로 WTI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ST독자의 공유지식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TT 독자는 이와 같은 정보가 익숙하지 않고 ST의 독자보다 훨씬 광범위한 독자층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번역사가 판단하여 개입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ST: Details of the agreement were not available, though it is believed to include an immediate ceasefire in the nearly two-month long war between Gadhafi's forces and those fighting to unseat him.

TT: 협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카다피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에 벌어진 약 2달간의 내전을 측각 중단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those fighting to unseat him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구체적인 표현인 반정부 세력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같은 전환방식은 은유를 번역할 때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은유에서 사용하는 비유의 관계는 많은 경우 인위적이고 관습적인 것이어서 항상 특정한 문화나 언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유적 표현을 그대로 TL로 전환하면 의미를 왜곡하거나 아예 의미전달이 안 되는 수가 있다.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언어적 요소들이 문화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현에서 fighting to unseat him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세력, 하야시키려는 세력, 정치적 사임을 요구하는 세력 등등 의미전달에는 문제가 없다.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의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고 의미의 모호함이 없도록 가장 적합한 표현인 반정부 세력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ST: Thursday's massacre of 11 students at a Brazilian school could have been even worse, were it not for the heroic actions of a military policeman.

TT: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루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7일 발생한 총기 난사로 학생 11명이 숨졌으며 이 참사에서 한 무장 경찰의英勇적 활약이 없었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었을 것이라고 주지사 사무실이 성명에서 밝혔다.

위 예문의 경우에는 could have been even worse를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환했다. ST에 대한 충실성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했었을 수 있다고 번역해야 옳다. 번역사는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더 심각했었을 수 있는지를 구체화해서 번역했다. Massacre of 11 students at a Brazilian school은 ST에서 브라질의 한 학교라고 표현되어 있던 정보는 TT에서는 브라질의 한 초등학교로, massacre는 총기난사로 표현을 대체했다. 이는 ST와 TT 간의 표현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변화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ST에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매번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처음에 총기난사라고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 문장에서는 대학살과 같은 비유적 표현으로 표현을 다채롭게 하고 읽는 재미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명사와 동사의 사용에서 많이 나타난다. 반면 TT에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는 의미의 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거의 항상 동일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위의 문맥에서는 massacre는 총기난사로 지속적으로 표현했고 브라질의 한 학교라는 표현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루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 표현하여 이 사건에 대해 TT 독자가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프레임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동일하게 표현했다.

#### 4.3 ST의 정보를 TT에서 생략 (A→ ∅)

ST: Authorities are trying to move carefully and follow legal procedures to bring Gbagbo to trial, said a senior U.S. official with knowledge of the events, declining to be named because of the sensitivity of the situation.

TT: 이번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미 고위 소식통은 관계 당국이 그바 그보 전 대통령을 재판에 세우기 위해 사법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 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ST: Biden is already planning to be in New Hampshire on Monday and will meet with key supporters in that crucial early voting state.

TT: 바이든 부통령도 이미 4일 뉴햄프셔주에서 주요 지지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Baker(1992: 40)는 독자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에도 긴 설명을 반드시 추가해야 할 정도로 특정 항목이나 표현이 전하는 의미가 텍스트의 전개에 중요하지 않다면 번역사는 그 단어나 표현을 간단히 삭제해버리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위의 예에서는 because of the sensitivity of the situation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익명을 요구한 상황은 충분히 민감할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전달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crucial early voting state라는 부연설명은 사실 미국에 있는 유권자에게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의미있는 정보이다. 그러나 한국의 TT 독자들에게는 뉴햄프셔의 선거에서 선점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시기적인 중요성의 의미를 강조하기 보다는

이 곳 선거에서 지지를 받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번역사가 번역했다. 따라서 ‘crucial early voting state’라는 의미는 생략되고 ‘주요지지자’라는 표현으로 번역됐다.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많은 공유지식이 없는 TT 독자와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ST: several of the children will be buried Friday at locations and time still to be determined, Agentia Brasil reported.

TT: 현지 언론인 아젠시아 브라질은 일부 희생된 학생들의 장례식이 8일 있을 예정이며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ST에서는 locations and time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TT에서는 장소는 생략하고 시간이라고만 표현했다. 이는 한국어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에 중복적이고 부수적인 정보를 생략한 경우이다.

ST: 우리측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북한이 요구했던 한반도 군사긴장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TT: We offered that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be discussed first, and then military tensions on the peninsula, which North Korea had requested,

위 예문의 번역 사례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뉴스 보도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서도 많이 다루어진바 있다. 북한의 도발문제는 국제사회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스러운 상황으로 한반도 인접국가 뿐 아니라 세계의 국가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때문에 위의 번역을 보면 TT 독자가 그동안의 사건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을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 두 고유명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프레임이 독자의 머리 속에 떠올려질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번역가가 갖추어야 할 번역능력 중 한 가지는 ST의 문맥을 잘 파악하고 TT 독자들의 인지적 배경지식을 파악할 다음에도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번역사는 Grice의 양의 격률을 지켜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양의 격률은 대화에서 현재 의사소통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제공하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말하는 것이다 (Grice 1989: 26). ST의 표현이나 정보가 ST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TT 독자들에게는 낯선 것이라고 생각되어 번역사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로 인해 오히려 독자가 정보처리를 하는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읽는 흐름을 자주 끊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는 TT 독자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중복정보가 될 수 있는 부연설명을 피하고 오히려 생략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점은 뉴스와 같이 정보전달이 주목적인 텍스트의 경우 더 특히 고려해서 하는 점이다.

#### 4.4 ST의 정보를 TT에 적합한 정보로 대체 ( $A \rightarrow A'$ )

ST: 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에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은 가공식품 4천만 킬로그램, ....

TT: According to the KFDA, over 40 million kilograms (44,092 tons) of processed foods, ...

ST: 문제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이바라키현 히타치에서 재배한 시금치에서 5만4천 베크렐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TT: The agency found 54,000 becquerel per kilogram of spinach grown in Hitachi, Ibaraki Prefecture, more than 100 kilometers (62 miles) south of the cripple Fukushima Daiichi nuclear plant.

거리의 항상 단위는 TT 독자가 인식하기에 익숙한 단위로 전환하고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날짜와 요일은 정확한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TT독자의 정보처리를 위한 수고를 덜어주고 관련성을 높일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는 거리 및 무게를 표시한 단위를 킬로그램에서 톤으로 킬로미터에서 마일로 전환해서 표시할 수 있었으나 괄호를 열고 병기했다. 이는 뉴스가 발행되는 신문사에서 정한 표기규정을 따른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이 뉴스를 읽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두 가지 단위에 모두 익숙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번역방식일 수 있다. 신문사마다 이러한 단위를 표기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TT 문화에서 사용하는 단위만을 표기하기도 한다. 기관의 명칭인 KFDA도 한국 식약청의 미국 측 대응기관인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표기방식과 유사하게 TT 독자들이 이 기관의 책임이나 목적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했다. 물론 한국 식약청의 영문명칭이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기 때문에 당연히 KFDA로 번역을 한 것이지만 혹시 다른 영문표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미국의 유사

기관의 명칭을 떠올릴 수 있도록 대체하여 번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ST의 기관이 TT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과 비슷하게 표기하는 방식을 번역사들이 택하고 있다. 미국의 식양청과 유사하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TT 독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의 관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ST: 한국 외교관 세 명이 상하이에서 근무하던 중에 같은 중국여성과 불륜을 맺고 그녀에게 정보관련 정보를 건네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

TT: Three Korea diplomats are suspected of having a romantic relationship with the same Chinese woman during recent tours in Shanghai and giving her government information ...

언어는 그 속한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위의 예문에서는 외교관과 중국 여성의 관계를 ST에서는 불륜으로 본 반면 TT에서는 로맨틱한 관계라고 표현한 점이 흥미롭다. ST 표현에서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의 행동을 부적절한 이성간의 관계인 ‘불륜을 맺고’라고 확정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들의 행동의 문제점을 비난하는 동시에 이들이 기혼자임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하고 있다. TT 표현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완화시킨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suspected’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이들 외교관의 행동에 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 범죄 여부에 대한 의혹에 좀 더 중점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ST: There were reports that he had left a letter behind that mentioned he had HIV.

TT: 이 괴한은 유서에 자신을 HIV 양성자라고 밝혔다고 아젠시아 브라질은 보도했다.

Letter는 편지 또는 서한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이나 문맥에서 괴한이 죽으면서 남긴 편지라는 정보를 반영하여 유서로 번역한 경우이다. 문맥에 적합한 용어의 선택이었다.

#### 4.5 언어 방향성에 따른 뉴스 번역 개입방법의 차이

뉴스테스트의 번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영한 그리고 한영 뉴스 번역 모두에서 ST와 TT 독자 사이 공유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번역사가 정보를 추가하거나

생략하고 교체하여 TT의 정보가 독자에게 관련성이 높도록 개입한 점을 볼 수 있었다. 60개의 뉴스 텍스트를 분석했고 이 중 30개는 한영번역 그리고 30개는 영한번역 텍스트였다. 분석 결과 총 99회의 개입이 발생했으며 이 중 개입방법을 분류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ST와 TT간 정보성 차이를 줄이기 위한 개입 방법

| 발생빈도          | Eng → Kor (빈도) | Kor → Eng (빈도) |
|---------------|----------------|----------------|
| 최다<br>→<br>최소 | 정보의 대체 (19)    | 정보의 교체 (21)    |
|               | 정보 교체 (15)     | 정보 대체 (11)     |
|               | 정보 추가 (9)      | 정보 추가 (7)      |
|               | 정보 생략 (5)      | 정보 생략 (6)      |
|               | 기타 (3)         | 기타 (1)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영한번역에서 번역사가 ST와 TT 독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개입방식은 ST표현을 TT 독자에게 관련성이 높게 새로운 표현으로 대체(A→A' 19회) 방식이었으며 다음으로는 ST표현을 TT 독자에게 적합하게 교체(A→B, 15회) 방식이었다. 이 외에도 TT에서 정보를 추가하거나 생략한 경우도 했다. 반면에 한영번역에서는 ST표현을 TT에게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교체해서 표현한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이어 정보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표현으로 대체한 빈도가 높았고 생략이 가장 적은 빈도로 나타났다.

뉴스 텍스트의 번역사례를 분석한 결과, 번역사는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보를 추가하거나 생략하는 방법보다는 ST 표현을 TT 독자와 관련성이 높은 표현으로 새롭게 교체하거나 상위어 또는 하위어 등을 사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뉴스 번역은 신문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이므로 TT 독자를 고려한 불필요한 추가나 부연설명보다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 등의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번역은 역시 ST에 대한 충실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ST의 정보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도 TT 독자에게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선호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한영이나 영한번역이라는 방향성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한영번역에서 좀 더 많은 비율로 정보를 교체 (A→B)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뉴스텍스트의 번역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인 SL과 TL 독자의 정보성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번역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뉴스 텍스트는 정보 중심적인 텍스트로 언어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번역 상의 어려움으로 수사적인 표현이나 단어의 치환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뉴스번역 역시 두 언어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개라는 점을 고려하며 ST와 TT 독자 간 정보성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번역사의 개입이 요구되는 번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이에 따라 언어에서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정보 중심적인 텍스트인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 정보성의 차이는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번역의 과정에서 번역사가 정보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실제 뉴스번역 사례를 분석하여 알아보았다.

번역사가 개입하는 방법은 정보의 추가, 대체 그리고 생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한 정보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마치 ST가 아니라 TT를 읽고 있는 것과 동일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보성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점은 독자의 요구사항과 기대수준을 잘 파악하는 것으로 지식수준이나 공유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를 주었는데 그것이 원래 정보보다 더 어렵거나 TT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관련성이 없는 것이라면 인지적 거리감은 여전히 멀다고 할 수 있다. 문맥과의 관련성이 높은 정보라도 이것이 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잘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 참고문헌

- 김순미. 2011. “정보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 추가 정보 제공 방법”, 『번역학연구』 12(1): 35-73.
- 박희진. 2001. “라디오 방송 텍스트 번역과 관련성 이론 연구”, 『번역학연구』 11(4): 99-124.
- 이창수. 2000. “문학작품에서의 비유적 표현의 번역”,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2(1): 57-83.
- Baker, M.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 Baugrande, R. de & W. Dressler.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and New

- York: Longman.
- Grice, P.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Gutt, A. 1993. *Relevance Theory: A Guide to successful Communication in Translation*.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Gutt, A.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Manchester: Saint Jerome House.
- J. 1981. *A Model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Kirk, S. H. 2001. *Translation and Textuality*, Seoul: Hankook Publishing Co.
- Klaudy, K. & K. Krisztina. 2005. "Implication in translation: Empirical evidence for operational asymmetry in translation".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6(1): 13-28.
- Leppihalme, R. 1997. *Culture Bump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Newbert, A. & G. M. Shreve. 1992. *Translation as Text*, Kent, Ohio: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Nida E. & C.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J. Brill.
- Reiss, K. 2000. *Translation Criticism - The Potentials & Limitation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Sperber D. & D.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조선일보 2011. 2.1. - 2011. 3.1.

Joongang Daily 2011. 2.1. - 2011. 3.1.

CNN 영한대역 2011. 2.1. - 2011. 3.1.

Korea Herald 2011. 2.1. - 2011. 2. 10.

## 이미경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E-mail: migyonglee@khu.ac.kr

접수일자: 2011. 07. 14

수정일자: 2011. 08. 16

게재일자: 2011. 08. 17